



John 20

요한복음 20
Tape #8088
By Chuck Smith

To the twentieth chapter of John as we continue our journey. Next Sunday night, we'll finish the gospel of John and then we'll launch into the book of Acts. So John chapter twenty. 우리의 여행을 지속해서 요한복음 20장에 도달하였다. 다음 주일 밤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끝내고 사도행전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제 요한복음 20장을 살펴보자.

The first day of the week [that will be Sunday morning] 안식 후 첫날에 [일요일 아침에 해당할 것이다] *cometh Mary Magdalene early (20:1)*,

The word translated “early” there is the word for the fourth watch, the Roman soldiers had the night set up into four watches. The first watch went from six to nine, then nine to twelve, twelve to three, the fourth watch was from three to six in the morning. So early in the morning, 여기서 “이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제4경을 말한다. 로마 군인들은 밤을 네 개의 시간 단위로 나누었다. 제1경은 6시부터 9시이고,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3시, 그리고 4경은 아침 3시부터 6시에 해당했다. 아침 일찍 즉,

when it was yet dark, unto the sepulchre, and seeth the stone taken away from the sepulchre (20:1).

In reading the various gospel accounts concerning the resurrection day, there do seem to be discrepancies in the accounts. In some of the other gospels, they have Mary Magdalene coming with the other ladies. In the other gospels, they have the other ladies on their way back from the tomb, meeting Jesus, holding Him by His feet and worshipping Him. So what probably is the chronological events on Easter Sunday morning is that Mary started off with the other ladies for the tomb. In her eagerness and desire to get there, she went ahead of the other ladies. When she came to the tomb and saw that the stone was rolled away, her immediate surmised was that they had moved the body of Jesus. She, without waiting for the other ladies to get there, ran to tell Peter and John that the body of Jesus was moved or that the stone was away from the door of the sepulcher. The other ladies then arrived. They saw the angels who told them that Jesus was risen and told them to go tell the other disciples. In the meanwhile, Mary arrives where Peter and John are staying and she tells them that the stone is rolled away. They come to investigate. They are running. In fact, we'll read that tonight as John tells us that they were running to the tomb together and that Mary no doubt decided to come back to the tomb. But by the time she got back, of course, Peter and John saw the tomb and then they left. Mary then came back, not knowing that the other ladies had seen the angels, and at this time she looks into the tomb, sees the two angels and then meets Jesus as we will read in John's gospel. 부활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복음서 기사를 읽어보면, 그 기술(記述)에 서로 상이한 듯이 보인다. 몇몇 다른 복음서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자들과 함께 왔다고 되어 있다. 또 다른 복음서에는, 다른 여자들이 무덤에서 돌아오다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발을 붙들고 경배를 드린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부활 주일 아침에 일어난 사건을 시간적으로 나열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마리아는 다른 여자들과 함께 무덤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무덤에 빨리 도착하고자 하는 성급 함에서, 그녀는 다른 여자들보다 앞서 달려 나아갔다. 그녀가 무덤에 도착하여 돌이 굴러진 것을 보았을 때, 그녀의 즉각적인 추측은 군병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가 버렸다는 것이었다. 다른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달려갔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며 돌이 무덤 입구에서 사라져 버렸다고 말하기 위해서였다. 그때쯤 다른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천사들을 만났는데, 천사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면서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알려주라고 했다. 그러는 사이에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에 도착하여 돌이 굴러가 버렸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그들은 달려갔다. 오늘 밤 우리가 읽게 될 요한복음의 내용에 의하면, 그들은 함께 무덤으로 달려갔으며 마리아도 물론 무덤으로 다시 가 보기로 하였다. 그녀가 무덤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미 무덤에 왔다가 떠나버린 뒤였다. 다른 여인들이

천사를 만난 사건을 모르는 마리아는 무덤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두 천사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So that's probably the chronological events which really there is not then a discrepancy with the other gospel accounts. So let's look at John's account as we have started. Then, when she saw that the stone was taken away from the sepulcher, that's all she saw and the surmised was, They've moved Jesus.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면 아마도 위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면 다른 복음서들과 상반되는 내용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기왕 우리가 시작한 요한복음의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자. 무덤으로부터 돌이 옮겨진 것을 본 마리아는 군사들이 예수님을 옮겨간 줄로 추정하였다는 얘기까지 우리가 하였다.

So she ran, and came to Simon Peter, and the other disciple [John], whom Jesus loved (20:2),

As we mentioned, John is the only one that describes himself that way. You don't read that in the other gospels. It's only in the gospel of John that you read,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 And John knew that the Lord loved him. I believe that he believed that the Lord loved him more than anybody else, like I'm sure He loves me more than the rest of you. And you are sure that He loves you more than He does the rest of us. The Lord has that unique way of relating to us where we each one of us feel very special to Jesus because we are each one of us very special to Him.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요한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제자'라고 표현한 유일한 사람이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란 말을 읽을 수 있다.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고 있었다. 요한은 주님이 자기를 다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신다고 믿고 있었다. 마치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신다고 확신하고 있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와 독특한 관계를 맺고 계신다. 실제로도, 우리 각자는 그분에게 있어서 매우 특이한 존재이다.

and she said unto them, They have taken away the Lord (20:2)

This is just a surmised on her part. This is just her observation and her immediate judgment of the situation. "They've taken away the Lord," 이것은 마리아 혼자만의 추측일 뿐이다. 발생한 사건을 살펴본 뒤 그녀가 즉각적으로 내린 판단은 이러했다: "사람들이 주님의 몸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out of the sepulchre, and we don't know where they have laid him. Peter therefore went forth, and that other disciple, and they came to the sepulchre (20:2,3).

John has to get in a little bit here. He said, 요한은 여기서 약간 부연 설명을 한다. 그는 아래와 같이 기록했다.

So they both of them ran together: and the other disciple outran Peter, and he came first to the sepulchre. And he stooping down, and looking in, saw the linen clothes lying; yet he went not in. Then cometh Simon Peter following him, and he went into the sepulchre, and seeth the linen clothes lie, And the napkin, that was about his head, not lying with the linen clothes, but wrapped together in a place by itself (20:4-7).

The Greek language here would indicate that the linen wrappings were still in their folds. That it was as though He just sort of evaporated out of. If you were going to unwrap somebody, you would unwrap him. But the wrappings were as though the body were still in it, they were still in their folds but the body of Jesus was not inside of the wrappings. The napkin that they had over His head was over in a place separate by itself. So they realized that the body of Jesus was not there, that He was not under the wrappings. 여기서 사용된 희랍어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풀이하면 이렇게 된다: 마치 그분이 방금 증발해 없어진 것처럼 세마포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의 수의를 벗기고자 한다면, 그것을 풀어 제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마치 몸이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세마포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라고 말한다. 그분의 머리에 씌워졌던 수건은 따로 개켜져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 없으며 그분은 수의에 싸여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John, it would appear immediately caught the significance of it. He realized that they hadn't moved the body of Jesus. Had they moved the body of Jesus, they would have moved it with the wrappings. Or at least

the wrappings would be all disheveled on the floor. But the way the linen wrappings were, he immediately realized that Jesus had risen. And so it says, 요한은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즉시 알아챘던 듯하다. 그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만일 시신을 옮겨간 것이라면, 그들은 수의에 싼 채로 옮겨갔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아니면 수의가 땅바닥에 널려져 있든지 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세마포 수의가 놓여진 형태로 보아 요한은 즉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임을 알아차렸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던 것이다.

Then went in also that other disciple, which came first to the sepulchre, and he saw, and believed (20:8).

He immediately perceived what the meaning was. 그 제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즉각적으로 깨달았다.

For as yet they knew not the scripture, that He must rise again from the dead (20:9).

That's of course an interesting thing. It shows the blindness of preconceived ideas. Jesus had told them over and over that He was to be crucified. When Jesus spoke of His crucifixion, Peter rebuked Him. Don't want to hear that! And it's interesting when you don't want to hear something, how you can just sort of close that out of your mind. You believe that you have a precept that is correct. The Messiah is going to rule and reign over the earth. That is a correct precept. But He did not come in His first coming to rule and reign. In His second coming, He will come to rule and to reign. 물론 이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이것은 선입견의 어리석음을 보여준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수 차례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 말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라고 충고까지 드렸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듣고 싶지 않을 때,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마음 문을 닫아 버리면 그만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지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이것은 올바른 개념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분은 초림 시에는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셨다. 그분은 재림 시에 세상을 다스리시게 될 것이다.

But they thought that the reigning Messiah was the only Messiah. They had sort of spiritualized the prophecies of His suffering. And so this idea of Him ruling was so strong in their minds that they even dismissed it everytime Jesus talked about His death and His resurrection. At the last part of this chapter, John tells us that Jesus did many other signs which He did not record. But these are written, in other words, John was selective in choosing the miracles and all that Jesus did. This happens to be the seventh sign that John records and the greatest sign of all, the resurrection of Jesus from the dead. 그들은 다스리는 메시아만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분의 고난에 대한 예언들을 영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렸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이 개념이 어찌나 강력했는지,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을 뒷등으로 들곤 했다.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은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다른 이적도 행하셨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과 모든 일들을 선택적으로 기록해 놓았던 것이다. 본문은 요한이 기록해 놓은 7번째의 이적인데, 모든 이적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신 기적이기 때문이다.

When Jesus began His public ministry, He began it by going to Jerusalem and cleansing the temple. You remember He went in and looked about and saw them as they were merchandising there, He made a little whip out of some cords. He began to drive them out and the disciples remembered the scriptures, The zeal of Thine house has eaten Him up. And the rulers came to Him and said, What sign do you show us that You're doing these things? Who gave you the authority to come in here and clean up this place? What sign do You give us? And Jesus said unto them, Destroy this temple and in three days I will rebuild it. They looked at Him rather incredulously and they said, We've been forty-six years building this thing and You say You're going to built it again in three days? We are told that they did not understand that He was talking about His body (John 2:13-21). The temple of His body. Destroy it and in three days, I will rebuild it. He's talking about His resurrection. That was at the beginning.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심으로써 시작하셨다. 여러분은 그분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둘러보시다가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발견하시고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던 일을 기억할 것이다. 그분은 저들을 내어쫓기 시작하셨으며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회고하였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려고 합니까? 이곳으로 들어와 이곳을 청결케 할 권세를 누가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이고자 합니까? 예수께서 저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만에 그것을 다시 지으리라. 저들은 그분을 어이 없다는 듯이 쳐다보며 말했다: 우리가 이 건물을 46년째 건축하고 있는데, 당신의 말은 이것을 3일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자기 몸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요 2:13-21). 이것을 무너뜨려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3일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그분의 몸 된 성전을 지칭하는 말씀이었다. 그분은 자신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다. 이것은 공생애 초기 단계에 대한 이야기이다.

But the disciples did not catch on. They did not understand that. Later on when Jesus was asked for a sign, He said, “A wicked and an adulterous generation seeks after a sign; no sign will be given to it, except the sign of the prophet Jonah: For as Jonah was three days and three nights in the belly of the whale; so shall the Son of man be three days and three nights in the heart of the earth” (Matthew 12:39,40). The supreme sign of Jesus as the Messiah, that He is indeed the Messiah is His resurrection from the dead and that is the heart of the Gospel message.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후에 예수님께서 표적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마 12:39,40).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최고의 표적은, 그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표적은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사실인데, 이것은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다.

As we go into Acts in just a few weeks, you will see in the book of Acts that in practically every message that was preached, they preached the resurrection of Jesus from the dead. “You with your wicked hands have crucified and slain: bu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because it was not possible that He could be held by it” (Acts 2:23,24). Every time they preached, their preaching was of the cross and the resurrection, that’s the heart of the Gospel. So as Paul is writing to the Corinthians, he said, “The gospel that we preach unto you, how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was buried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and rose again according to the scriptures” (1 Corinthians 15:1-4). That’s the message of the Gospel. That’s the heart, the soul of the Gospel. So here is the story of the resurrection. 이제 몇 주 후면 사도행전을 살펴보게 되겠지만, 여러분은 그 책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선포한 거의 모든 메시지 가운데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행 2:23,24).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들의 설교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서신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 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고전 15:3,4).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며 진수이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도 부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다.

Now in the book of Acts chapter one, it tells us that “He showed Himself alive after His death by many infallible proofs” (Acts 1:3). And thus the resurrection. As far as the disciples were concerned was a proved fact because they were eyewitnesses, they saw Him. So the story of the resurrection. “Yet they knew not the scriptures, that He must rise again from the dead.” They really thought it was over. They weren’t waiting for the third day, anxiously, Alright, tomorrow, that’s it, man. They weren’t waiting for that. They really thought it was over. As far as they were concerned, it’s done, it’s over. We had hoped in Him for the salvation of Israel. But they put Him on a cross and this is the third day. And they said, Some of the women said that they saw Him but, you know. And Jesus said, “O fools, and slow of heart to believe all that the scripture says”

(Luke 24:25). They believed only part of what the scripture said. They only believed the part of the ruling, reigning Messiah but they didn't believe that part that He would be "wounded for our transgressions, and bruised for our iniquities. Despised and rejected of men. That God would lay on Him the iniquities of us all." And that He would be "numbered with the transgressors" in His death (Isaiah 53:3,5,6,12). And they would pierce His hands and His feet. "They would part His garments among them, and cast lots for His vesture" (Psalm 22:18). They didn't believe all that the scriptures said, only part. 사도행전 1장에 가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행 1:3). 그러므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활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분을 본 사람들이요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참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조바심이 생겨서 제3일까지 기다리지를 못했다: 내일이면 다 끝장이야. 그들은 3일 간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참으로 모든 게 끝난 줄로 알았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끝장이 나 있었다. 모든 게 끝난 것이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오늘이 제3일이다. 몇몇 여인들이 말하기를 그분을 보았다고는 하나 당신도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눅 24:25). 그들은 성서가 말하는 내용의 일부분만을 믿고 있었다. 그들은 다스리고 지배하는 메시아만을 믿었을 뿐, 메시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예언은 믿지를 았았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시키셨도다" (사 53:5,6). 그리하여, 그분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게 되었다" (사 53:12). 사람들은 그분의 손과 발을 찢었다. "저희가 내 겹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시 22:18). 그들은 성서가 말하는 모든 것을 믿지 못하고 그 일부분만을 믿고 있었다.

Now we read that,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게 된다.

The disciples then went away again to their own home (20:10).

According to tradition, John had a home in Jerusalem. We talked about that last week, that he was known to the household of the high priest and that he had a home there in Jerusalem. That his family was wealthy and his father was a fish merchant and that John was probably one of the salesmen in Jerusalem, bringing the fish from the Galilee and it was a tremendous delicacy in Israel. And so it is thought that John had a home there. "They went to their own home."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요한은 예루살렘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는 지난 주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요한은 대제사장 집안에 알려진 사람이었으며, 그는 거기 예루살렘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가족은 부유했으며 그의 아버지는 생선 장수였다. 그의 아버지는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거하면서 갈릴리로부터 생선을 가져다가 팔던 상인들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그 생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즐기던 진미였다. 그러므로 요한이 예루살렘에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었을 만도 하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But Mary stood without at the sepulchre weeping (20:11):

It could be that they were there when Mary came back or that they had left before Mary came back but she was standing there by the sepulcher weeping, 마리아가 무덤으로 다시 왔을 때 그 제자들도 거기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마리아가 돌아오기 전에 그들은 이미 떠나 버렸고 마리아는 거기 무덤 가에 혼자 서서 울고 있었을 것이다.

and as she wept, she stooped down, and she looked into the sepulchre, And she saw two angels in white, they were sitting there, the one at the head, and the other at the feet, where the body of Jesus had lain. And they said unto her, Woman, why weepest thou? She said unto them, Because they have taken away my Lord, and I know not where they have laid him (20:11-13).

Several things that are of interest here. Even though He had been dead for three days as far as Mary was concerned, He was still her Lord. She had a love that death could not quench. And rightly so. Jesus said,

“Those that are forgiven much love much” (Luke 7:47). Mary, prior to meeting Christ, had a miserable life. We know from the scriptures that He had cast seven devils out of her. We cannot imagine the torment of a person who is possessed by an unclean spirit. The absolute torture and torment. She knew it firsthand. Her life was one of abject misery, hopelessness. When she met Jesus, her life changed. He by a word drove out the darkness and brought in the light. He delivered her from the powers of darkness that had enslaved her. He set her free. And she in response and in gratitude committed her life to Him, fully, completely. Tremendous love. And though He has been crucified, she stood there by the cross watching it. Yet He’s still her Lord. 여기에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그분이 3일 동안 죽은 채로 계셨지만, 마리아에게는 그분이 여전히 주님이셨다. 그녀는 죽음도 끄지 못하는 불타는 사랑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는” (눅 7:47) 법이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께서 그녀로부터 일곱 귀신을 쫓아내주셨다고 한다.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고통이 어떠한지 우리는 짐작하기 힘들다.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일 것이다. 그녀는 그런 고통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삶은 비천하고 비참하고 소망이 없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그녀의 삶은 변했다. 그분은 말씀 한 마디로 어두움의 세력을 쫓아내시고 빛을 불러들이셨다. 그분은 그녀를 사로잡고 있던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 그녀를 구해주셨다. 그분은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셨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그녀는 감사에 넘쳐 자신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바쳤다. 그것은 굉장한 사랑이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그녀는 십자가 곁에 서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분은 여전히 그녀의 주님이셨던 것이다.

And when she had thus said, she turned herself back (20:14),

That’s interesting to me. When you’re looking for the Lord, even angels won’t do. I imagine if you look in a sepulcher and see a couple of angels and they start talking to you, man, you’d be so excited and you’re angels, wow! But they might be wonderful but they’re no substitute for the Lord. And so she turned from them, 내가 보기에 이 구절은 흥미롭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 구할 때는, 천사들도 여러분에게 소용이 없을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무덤을 들여다보다가 서너 명의 천사를 만났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보게, 자네는 매우 흥분했겠네. 와, 천사들을 만나다니 말이야! 천사들이 놀라운 존재이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주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천사들로부터 돌아섰던 것이다.

and she saw Jesus standing there, but she did not know it was Jesus (20:14).

Again it’s very early in the morning. You can see figures but they’re not necessarily recognizable, especially if your eyes are filled with tears and the prism of the tears is blurring your vision.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매우 이른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을 쳐다볼 때, 그들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특히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거나 눈물이 빛을 분산시켜 시야를 가렸을 경우 그럴 것이다.

Jesus said unto her, Woman, why weepest thou? Who are you looking for? She, supposing him to be the gardener, said unto him, Sir, if you have borne him from here, if you’ll just tell me where you’ve laid him, I will take him away (20:15).

That’s a pretty strong statement for a little gal. I believe that Jesus was a good size man. Here she is saying, just tell me where you’ve taken Him, I’ll carry Him away. The strength of love. I’m sure she could have because of the strength of love. But I think that at that suggestion, Jesus probably saw some humor in it. And 이것은 연약한 여인이 한 말 치고는 매우 강력한 진술이다. 나는 예수님의 몸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마리아는 이렇게 제안하였다: 당신이 그분을 어디다 모셔두었는지 내게 알려주기만 하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다른 데로 모시고 가리이다. 이것은 사랑의 힘이었다. 사랑의 힘 때문에 그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으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한편 그런 제안 속에 담긴 우울한 기분을 예수님은 아마 인식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And He said, Mary. She turned herself to Him and said, Rabboni; which is to say, Master. Jesus said unto her, Touch me not; for I have not yet ascended to my Father: but go to my brethren, and say unto them,

I ascend unto my Father, and to your Father; and to my God, and your God (20:16,17).

There's a couple of different interpretations here. There is a difficulty here to be sure because Matthew's gospel tells us that as the other ladies were going from the sepulcher, Jesus met them and they held Him by the feet and worshipped Him. When Jesus appeared to the disciples, He said, "Behold my hands, my side. Handle me. touch me, see if it isn't Me" (Luke 24:39). And yet He is saying to Mary, Touch me not. 본문에 대해서 몇 가지 상이한 해석이 있다. 본문과 관련하여 한 가지 확신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다. 마태복음에 보면, 다른 여인들이 무덤으로부터 오다가 예수님을 만났으며 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를 드렸다 라고 되어 있다. 예수께서는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눅 24:39). 그에 비하여, 본문에서는 마리아에게는 "나를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The word here in Greek is in the present imperative which could be translated, "Don't cling to me." What Jesus is possibly saying is, Don't cling to Me, Mary, but go and tell the disciples that I'm risen. It's my feeling that when she saw Him, she probably got a death hold grip around His neck. And sort of, You got away from me once but you're never going to get away from me again. I'll never let You go again. In her excitement, in her thrill, I believe that she really just grabbed Him, clung to Him. And He said to her, Don't cling to Me, Mary, but just go and tell my brethren and tell to them that I'm ascending to the Father, your Father, to My God and your God. 여기서 사용된 회랍어는 명령법 현재로 되어 있는데, 이는 "나에게 달라붙지 말라"고 번역할 수 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정도의 내용이다: 마리아야, 나를 붙잡지 말고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고 말하라.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녀는 그분의 목을 사정 없이 끌어안았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마도 이렇게 말씀 드렸을 것이다: 이전에는 저를 버리고 가셨지만 다시는 저를 떠나지 못하실 겁니다. 다시는 주님을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흥분과 전율을 느끼던 그녀는 강력하게 주님을 붙들고 늘어지며 그분께 달라붙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마리아야, 나에게 달라붙지 말고 오히려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께로,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라고 하라.

Another possibility is that He was going to and did ascend to the Father immediately upon the resurrection to present the blood of the sacrifice but that's a little difficult because it would have been a very quick trip. 또 다른 가능성은, 부활 후 예수님은 즉시 아버지께로 올라가 희생의 피를 바치려 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좀 어렵기는 했지만, 그렇게 하려면 아주 서둘러야 했을 것이다.

Mary Magdalene came and told the disciples that she had seen the Lord, and that He had spoken these things unto her (20:18).

Thus it is interesting that the first one commissioned to share the glorious gospel of the resurrection was a woman. And God had chosen Mary Magdalene to be the first one to share the good news. 어쨌든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위임 받은 첫 번째의 사람이 여인이었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여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할 첫 번째의 사람으로 삼으셨던 것이다.

Later on, a short while later, Jesus appeared to the other ladies. They held His feet and worshipped Him. And later on in that afternoon, He appeared to the two disciples on the road to Emmaus. That evening He appeared again to the disciples here in Jerusalem. The other disciples made mention of the fact that some of the women said that He was risen but they made mention of that in an unbelieving way. They didn't really believe the story of the women. 조금 후에 예수님은 다른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를 드렸다. 그 날 오후 늦게 그분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다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그 날 저녁에 그분은 여기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다른 제자들은 몇몇 여인들이 말하기를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하더라 고 전했으나, 불신하는 어조로 말했다. 그들은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지 못했던 것이다.

That same day at evening (20:19),

Remember it was at evening that He left the two disciples in Emmaus. As they had come to Emmaus,

they said, Abide with us because the evening is drawing on. So He went into the house and He sat down with them. And you remember He broke bread, and as He broke bread they suddenly realized it's Jesus. Probably they saw the nailprints in His hands. And they recognized it was Jesus and immediately He disappeared (Luke 24:13-31). 주님이 그 두 제자들을 엠마오에 남겨두고 떠나신 게 저녁 때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엠마오에 도착하자 그들은 저녁이 가까워 오니 저희와 함께 거하시지요 하고 주님께 권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앉으시게 되었다. 여러분은 그분이 떡을 떼셨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분이 떡을 떼실 때 그들은 갑자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아마도 그들은 주님의 손에 난 못 자국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알아차리자마자 그분은 떠나가버리시고 말았다 (눅 24:13-31).

Now this first day of the week, the same day at evening, when the doors were shut where the disciples were assembled because of the fear of the Jews, Jesus came and stood in the midst of them, and saith unto them, Peace be unto you. And when He had so said, He showed unto them His hands and His side (20:19,20).

And as the other gospels said, He said, Handle Me, see if it isn't Me.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그분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고 말씀하셨다.

Then were the disciples glad, when they saw the Lord (20:20).

They have now more than just the testimony of the women. Actually Jesus appeared to Peter sometime during that day but now they have seen Him for themselves. 저들은 이제 여인들의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되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날 중 한 때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Then said Jesus to them again, Peace be unto you: as my Father hath sent me, even so send I you. And when he had said this, he breathed on them, and He said unto them, Receive ye the Holy Spirit (20:21,22):

I believe that it was at this time that they received the second of the threefold relationship of the believer with the Spirit. Jesus had said in the fourteenth chapter concerning the Spirit that was going to come, "I will pray the Father, He'll give you another Comforter; even the Spirit of truth; that He may abide with you forever; whom the world cannot see, because it seeth Him not, neither knoweth Him: but you know Him; because He dwells with you [para], He shall be in you" (John 14:16,17). He shall be in you. So when Jesus said, "Receive ye the Holy Spirit," I believe that they experienced at that point the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and at that point were probably born again by the Spirit. 바로 이 때 그들은 신자와 성령 간의 3중 관계의 두 번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예수님은 장차 오실 성령에 관해서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희랍어로 '파라']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 14:16,17).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순간 그들은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며 그 순간 아마도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났을 것이라고 내가 믿는다.

Jesus had said to Peter earlier, "When thou art converted, strengthen thy brethren. Satan's asked for you, he wants to sift you like wheat: I've been praying for you: when you're converted, strengthen your brethren" (Luke 22:31,32). So I believe that at this point the Spirit began to indwell them. A born again, born of the Spirit experience. It was imperative that Jesus go away because the Spirit could not come, He said, until He had gone away. This third relationship where they would then be empowered.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and here the third preposition, upon you, "epi". When He comes upon you, you will be empowered to witness, to be my witnesses. And so "He breathed on them and said, Receive ye the Holy Spirit." 예수님은 이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눅 22:31,32). 그러므로 내가 믿기로는 이 순간 성령이 그들 속에 내주하기 시작하셨을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났을 것이며, 성령을 경험함으로써 거듭나게 되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떠나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분이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실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기 세 번째의 관계가 있는데, 이로 인하여 그들은 권능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고 하셨는데, 여기에 세 번째의 전치사가 등장한다: ‘너희에게’의 ‘에게’(희랍어로 ‘에피’)이다. 그분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증인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고 말씀하셨다.”

I don't think that Jesus could breath on you and say that without something happening. And I believe that it was at that point that they did receive the indwelling, “He shall be in you,” and they received the indwelling of the Spirit.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믿기로는, 바로 그 순간 그들에게 성령이 내주하게 되었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셨으니, 그들은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다.

Then this difficult statement,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어려운 구절이 등장한다.

Whose soever sins you remit, they are remitted unto them; and whose soever sins you retain, they are retained (20:23).

Does that mean that I have the power to forgive someone their sins? Or I have the power to retain their sins?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권한을 갖게 된 다는 말일까? 그들의 죄로 하여금 그대로 있게 할 권한을 내가 가지게 된단 말인가?

When they had let that man with the palsy down in the presence of Jesus as He was teaching in the house; you remember they removed the roof and let the guy down, and Jesus said unto him, Thy sins are forgiven thee. And the Pharisees that were there immediately were rankled because they said, That's blasphemy. Who can forgive sins but God? And the truth of the matter, no one can forgive sins but God. And so Jesus, to prove that He had the power to forgive sins, said, What is easier to say, Your sins are forgiven; or to say, Rise and take up your bed and walk? And so that you might know that the Son of man has power on earth to forgive sins, He turned to the man, He said, Take up your bed and walk. And the man took up his bed and walked (Mark 2:4-12). But the whole premise was only God can forgive sins. 예수께서 한 집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그분 앞으로 달아 내린 사건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이다. 그 때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자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충격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이는 참람한 일이다. 하나님 외에 누구 감히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건 사실이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죄를 용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어서 그분은 그 병자를 쳐다보고 말씀하셨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하여 명하니, 너는 네 자리를 들고 걸어 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막 2:4-12). 이 사건 전체의 전제(前提)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When David was praying in the fifty-first psalm concerning his sin, he said, “Against Thee, and Thee only, have I sinned, and done this great evil in Thy sight. Have mercy on me, O God, according to the multitude of Thy tender mercies blot out my transgressions. For against Thee, Thee only, have I sinned” (Psalm 51:1,4). Sin is against God and thus only God can forgive sins. 다윗은 시편 51장에서 자기 죄와 관련하여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시 51:1,4).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Then what is Jesus saying, what does He mean when He said, Whosoever sins you remit, they are remitted; and whosoever sins you retain, they are retained. When I meet a person who has been hassled by Satan because he has sought to convince them that they are still guilty before God, and I ask them if they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and they answer in the affirmative; do you believe that He died for your sins? Yes. Do you believe He rose again? Yes. Do you believe it with all your heart? Yes. Have you asked Jesus to forgive you your sins and be the Lord of your life? Yes. Well then I say unto them, Then your

sins are forgiven. I speak to them a word of faith. Upon the basis of their confession that Jesus is the Lord and their belief that God has raised Him from the dead, I declare to them, Your sins are forgiven. Not that I have forgiven them but I'm just declaring to them what God's word has to say. There are lot of sensitive souls who just need that kind of assurance of just someone saying to them, God has forgiven your sins. They just can't quite accept the scripture. If a person is stubborn in his resistance to Jesus Christ, if he refuses to acknowledge Jesus as Saviour or Lord, if he says that he doesn't want anything to do with Jesus, then I say to him, Well, you, if you continue will die in your sins. You see, I couldn't say to someone of that nature, Your sins are forgiven anyhow. But I can declare to them what God's word has to say and I can speak to them God's truth. Your sins are remitted, or your sins are retained. But it all is dependent upon if you have confessed your sin, we know that He'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you and to cleanse you from all unrighteousness. So I can say to them on the authority of God's word, Your sins are forgiven. 예수께서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고 말씀하셨을 때, 그 게 무슨 의미였을까? 나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고생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네 죄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사주하고 있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가 라고 그에게 물었다. 그는 그렇다 고 대답했다. 당신은 그분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믿는가? 그렇다. 당신은 그분이 살아나신 것을 믿는가? 그렇다. 당신은 그 사실을 마음을 다하여 믿는가? 그렇다. 당신은 예수님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셔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라고 요청해 보았는가? 그렇다. 그렇다면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데, 당신의 죄는 용서를 받은 것이다. 그런 다음, 나는 그를 향하여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당신의 고백과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당신의 신앙에 근거하여 내가 당신에게 선언하나니, 당신의 죄는 사하여졌노라! 내가 그의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에게 선포한 것 뿐이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이런 확신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신경과민에 걸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들은 성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고집을 피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저항한다면, 만일 그가 예수님은 구세주요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한다면, 만일 그가 자기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도 맺기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좋소. 당신이 계속 그런 식으로 행한다면 당신은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어떤 사람에게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식으로 말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말할 수는 있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는 있다. 당신의 죄가 사해졌든지 아니면 당신의 죄가 그대로 있다든지 하는 판단을 전해줄 수는 있다. 그 모든 것은 당신이 자기 죄를 고백하였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임을 우리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힘입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Now we read concerning Thomas, 이제 우리는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된다.

Thomas, one of the twelve, called Didymus (20:24),

The word "Didymus" means "twin," whether he had a twin brother or sister we really don't know. "디두모"라는 단어는 "쌍둥이"를 의미한다. 하지만, 그가 일란성 쌍둥이였는지 이란성 쌍둥이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 없다.

he was not with them when Jesus came. The other disciples therefore said unto him, We have seen the Lord. But he said unto them, Except I shall see in his hands the print of the nails, and put my finger into the print of the nails, and thrust my hand into his side, I will not believe (20:24,25).

His was a confession of unbelief. Until I can see it for myself. Thomas is a very practical sort, he's sort of a melancholy. But he's a very practical sort. When Jesus was down at the Jordan river and got the news that Lazarus was sick and He stayed around the Jordan for a couple of days and then said, Let's go on up to Lazarus. They started talking a little bit about it and Jesus said, He is sleeping. One of them said, That's good sign, if he's sleeping, he probably getting better. Jesus said, No, he died. And I'm glad for your sake that I wasn't there. And now let's go on up that I might awaken him from his sleep. And the disciples said, Lord,

the last time You were there they tried to kill You. But Jesus was going so Thomas said, Okay, let's go and die with Him. He was at least willing to put his life on the line. If you go, Lord, I'm going with you. He was willing to put his life on the line. 그의 고백은 불신앙적인 것이었다. 내가 그것을 직접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는 말이다. 도마는 매우 실제적인 사람이었으며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예수께서 요단강 가에 계실 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요단 근처에 며칠 더 머무신 뒤 이제 나사로에게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그 일에 대해 논란을 벌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가 자고 있다.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말했다: 그 거 잘 되었습니다. 그가 자고 있다면 저절로 깨어날 게 아닙니까. 예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그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가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그러자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그를 잠으로부터 깨우자꾸나. 제자들이 말했다: 주여, 지난 번에 당신이 거기 계실 때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벌써 가고 계셨다. 그러자 도마가 말했다: 좋습니다.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서 죽으렵니다. 도마는 최소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려 했던 사람이다. 주여, 당신께서 가신다면 저도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는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으려 하였다.

Later Jesus said to His disciples that He was going away to prepare a place for them. That where He was there they might be also. And He said, If I go I will come again and receive you unto myself that where I am, there you may be also. And where I'm going, you know, and the way, you know. Here's old straight Thomas, the other disciples were going, Yeah, yeah. But Thomas said, Hey Lord, we don't know where You're going. And how can we know the way? So here he is again, I don't believe it. I won't believe it until I can see for myself.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길을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도 예의 그 직설적인 도마가 등장한다. 다른 제자들은 그저 '좋습니다'만 연발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마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주여, 우리는 당신께서 어디로 가실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직접 보기 전에는 그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We talked this morning about the cost of unbelief. It cost him seven days. We read here eight days so it was actually the eighth day because it was the following Sunday that Jesus appeared and Thomas was present. But he went through the eight days of misery. Unbelief can make you miserable. It can leave you in the pit. Here the other disciples are all rejoicing, they're excited, they're thrilled, they're happy. They're just, Oh yes! And here's Thomas going around, It's over, man. Unbelief. It keeps you in the depth of despair when you should be rejoicing. God has done a work. You should be rejoicing. But unbelief will keep you in that despondent state even though God has already worked. 오늘 아침에 우리는 불신의 대가(代價)에 대해 말하고 있다. 도마에게 있어서 그것은 7일이 되었다. 우리는 본문에서 여드레가 지났다는 말을 읽게 된다. 실제로 여드레였다. 예수께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신 것은 그 다음 주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8일 동안 비참한 생활을 했다. 불신은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 그것은 여러분을 구렁에 빠뜨릴 수 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즐거워하며 흥분하며 감격하며 좋아했다. 그들은 오 잘 되었습니다! 라고 외쳤다. 그러나 여기 도마가 있다. 그에게 있어서는 모든 게 끝난 상황이었다. 그의 불신 때문이었다. 불신은 여러분이 즐거워해야 할 때에 여러분을 낙담의 심연에 빠뜨린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여러분은 즐거워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불신은 여러분을 낙심에 떨어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성취하셨는데도 말이다.

And after eight days again his disciples were within, and Thomas was with them: then came Jesus, the doors being shut, and He stood in the midst of them, and He said [the same thing He said earlier 그분은 이와 동일한 말씀을 이전에도 하신 적이 있다], Peace be unto you. Then He said to Thomas, Reach hither your finger, and behold my hands; and reach hither thy hand, and thrust it into my side: don't be faithless, but believing (20:26,27).

This is interesting to me. I believe that Jesus was for forty days in which He appeared to them in

different places, on different occasions, in different ways, I believe that He was during this forty days suddenly appearing, disappearing, appearing, disappearing, I believe that He was wanting to get them accustomed to the fact that He was there with them even though they didn't see Him. He had said, "Lo, I am with you always" (Matthew 28:20). "Where two or three are gathered together, there I am in the midst" (Matthew 18:20). He taught that He would be present with them. But He was seeking to get them used to the fact that He was present with them even though they didn't see Him. So when He appeared on the second Sunday and Thomas was there, and immediately He just said, Peace be unto you. Thomas, go ahead, put your finger in the spot there. Put your hand in my side. Where was Jesus when Thomas was saying, Unless I can do that I won't believe? He was right there and He heard it. He heard his expressions of unbelief and doubt. 이것은 내가 보기에 흥미로운 사건이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여러 계제에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것이다. 그분은 그 40일 동안에 갑자기 나타나셨다가는 갑자기 사라지시고 다시 나타나셨다가는 다시 사라지시고 했을 것이다. 그분은 제자들이 비록 그분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익숙해지기를 원하셨을 것이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볼찌어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 18:20). 그분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고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비록 그분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언제나 그분은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제자들이 친숙해지도록 만들려고 애를 쓰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부활 후 두 번째 일요일에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즉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야, 어서 앞으로 나와서 네 손가락을 여기 이 자리에 대어 보아라. 너의 손을 뺀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내가 그렇게 해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 고 도마가 말할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바로 그 자리에 와 계시면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 그분의 도마의 그 불신과 의혹에 찬 목소리를 들으셨다.

I think that it is extremely important for us to develop the consciousness of the presence of Jesus, though we don't see Him. I believe that Jesus is here tonight. Two or three of us are gathered together. He's here with us tonight. I believe that. I do believe that when we come into the consciousness that Jesus is here, Jesus is with me, that that is probably one of the greatest incentives to holy living that we'll ever have. The Lord is here. I think that that is the greatest thing to inspire faith. You say if I could just see Him. That's what Thomas was saying. I need to see. 비록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예수님의 임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예수님은 오늘 밤 여기에 계신다고 나는 믿는다. 우리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여기 오늘 밤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며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된다면, 그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데 가장 큰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주님은 여기 와 계시다. 이것은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여러분은 '내가 그분을 볼 수만 있다면' 하고 말할 것이다. 그것은 도마가 한 말이기도 하다: 나는 내 눈으로 꼭 보아야 하겠다.

So Thomas answered and said unto him, My Lord and my God (20:28).

Here again is one of those places where Jesus is called God. In the first chapter of the gospel of John,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the Word was with God, the Word was God. The sam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All things were made by him" (John 1:1-3). So John calls Him God in the beginning of the book. Here at the end of the book, and I really believe that the book ends right here in chapter twenty. I think that chapter twenty-one is sort of an appendix to the book.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불리신 구절 중 하나이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 1:1-3). 그러므로 요한은 이 책의 서두에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그리고 여기 이 책의 말미에서 그는 다시 한 번 그렇게 하고 있다. 내가 진실로 믿기는, 이 책은 바로 여기 20장에서 사실상 끝이 난다는 점이다. 남은 21장은 이 책의 부록에 해당할 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John decides to add this one extra story. And probably because of a false rumor that had become quite prevalent in the church that Jesus was going to return before John died. I think that John wrote this last

chapter to sort of put to rest that rumor that Jesus was returning before John had died. 요한이 21장의 이야기를 추가하기로 작정한 것은 아마도 초대 교회 내에 상당히 퍼져 있던 한 거짓 소문 때문이었을 것이다.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돌아오실 것이라는 소문 말이다. 요한이 이 마지막 장을 첨가한 것은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풍문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으리라 고 나는 생각한다.

Here he says, “My Lord and my God.” In Hebrews chapter one, as the author of the book of Hebrews is introducing to them the person of Jesus Christ, “Who in these last days spoken unto us by His Son, whom He has appointed heir of all things, by whom He made the worlds; Who being the brightness of His glory, the express image of His person, and upholding all things by the word of His power, when He had by Himself purged our sins,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Majesty on high; Being made so much better than the angels, as He by inheritance hath obtained a more excellent name than they. For unto which of the angels said He at any time, Thou art my Son, this day have I begotten thee? And again, I will be to Him a Father, and He shall be to me a Son? And again, when He bringeth in the firstbegotten into the world, He saith, And let all the angels of God worship Him. And of the angels He said, Who makes His angels spirits, and His ministers a flame of fire. But unto the Son He saith, Thy throne, O God, is for ever.” The Father or God is speaking to the Son and calling Him God. “Unto the Son He saith, Thy throne, O God, is for ever and ever: a sceptre of righteousness is the sceptre of thy kingdom” (Hebrews 1:2-8). 본문에서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니이다”라고 말했다. 히브리서 1장을 보면, 그 책의 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난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만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며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하였도다” (히 1:2-8).

If God calls Him God, that’s good enough for me. May not be good enough for the Jehovah Witnesses but I’ll buy it. “My Lord and my God.”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다면, 나는 그것 이상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이것이 여호와의 증인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겠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Jesus said unto him, Thomas, because You have seen me, You have believed: but blessed are they that have not seen, and yet have believed (20:29).

Peter later writing his epistle said, “Whom having not seen, you love; and though you do not yet see him, yet you rejoice with the joy that is unspeakable and full of glory” (1 Peter 1:8). The old Missouri adage is, Show me. Seeing is believing. But Jesus said, “If you can believe, you will see.” Believing is seeing. If you can believe, you will see the glory of God. 베드로는 후에 자기 서신에서 이렇게 말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벧전 1:8). 오래된 미주리(Missouri) 격언이 하나 있다: ‘나에게 보여 주시오. 보면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믿을 수 있다면 너는 보게 될 것이니라.” 먼저 믿으면, 보게 될 것이니라. 만일 네가 믿을 수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니라.

Now John tells us that, 이제 요한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한다.

Many other signs Jesus did in the presence of His disciples, which are not written in this book (20:30):

Jesus did a lot of other things. In the next chapter he’ll say, If all of the things that Jesus did were recorded, all of the things were written about Him which could be written, he said, all of the libraries in the world could not hold the books. So John is admitting that he has, first of all, been selective. He didn’t record

everything Jesus did. Out of the many, many, many things that Jesus did, John was selective and he chose certain things, certain signs. And as you go through the Gospel of John, there are seven signs that John brings out of what Jesus did. He did a lot of others but these seven John chose. And he chose them with a purpose.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 다음 장으로 가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한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모두 기록한다면, 그분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는다면, 이 세상에 있는 도서관들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책들을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은 무엇보다도 자기가 선택적으로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낱낱이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 아주 많은 일들 중에서 요한은 취사선택을 하였으며 몇 가지 사건들과 표적들만 기록해 놓았다는 말이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는다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 중에서 요한이 7가지 표적만을 뽑아 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분은 그 외에도 아주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요한은 그 7가지를 선택하였던 것이다. 그가 그것들을 선택한 데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The purpose of his writing this Gospel was to convince people that Jesus is the Messiah in order that they might believe that He is the Messiah and thus have life, the life of Christ, life through Him. So in Isaiah 55 we read, "As the rain cometh down from heaven, and returns not thither, but it waters the earth, to give seed to the sower, and bread to the eater: So is My word that goeth forth out of My mouth [saith the Lord]: it shall not return unto Me void, but shall accomplish the purposes for which I have sent it" (Isaiah 55:10,11). What is the purpose of the gospel of John? 그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신 시키기 위해서 였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과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사 55:10,11).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these things are written, that you might believe that Jesus is the Messiah; and by believing have life through His name (20:31).

It is always wise to encourage a person to read the gospel of John who doesn't believe in Jesus Christ. If you can just get them to read, challenge them. Get them to read the gospel of John. Because God said, "My word will not return to Me void. It will accomplish the purposes for which I have sent it." And if this Gospel was sent to cause a person to believe that Jesus is the Messiah, that by believing that they might have life through His Name, then it's a great book to get people to read.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권고하는 것은 언제나 현명한 일이다. 여러분이 사람들로 하여금 요한복음을 읽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힘써라.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을 읽도록 권고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나의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니라."

It's tragic that so many people have such completely biased prejudice against Jesus without ever knowing Him or really knowing about Him except from enemies of Jesus. All they know is what they've heard others say and they begin to parrot what others have said. Like when Pilate said,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Jesus said, You ask this of yourself, or are you just parroting what you've heard others say (John 18:33,34)? And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se unbelief is based upon negative things that they've heard about Jesus but they've never read as much as the gospel of John. It is really wrong to have an opinion on something before you really examine the facts. And it is foolish to have an opinion on an issue that is important as your eternal salvation without truly giving an honest examination of the facts.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듯 완전히 비뚤어진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비극이다. 그들은 예수의 원수가 가르쳐준 것 외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그들이 아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서 배운 것 뿐이며,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되뇌일 뿐이다. 빌라도처럼 말이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이렇게 응대하셨다: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요 18:34)?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부정적인 말을 듣고 거기에 근거해서 믿지 않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요한복음조차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기 전에 어떤 것에 대해 의견을 말하는 것은 참으로 그릇된 것이다. 사실 여부에 대해 정직하고 진실하게 조사해보지도 않고 영원한 구원 같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To develop a prejudice against Jesus is sheer folly unless you have personally examined the facts and then have made up your mind. I cannot respect a person's judgment who has already prejudged a situation before he has been able to examine all of the facts. Like I've often said, if I see a person sit down at a meal and immediately take the salt shaker and start salting all of his food without first tasting it, I don't respect his judgment. He's already prejudged it's not salty enough. But how do you know that the cook didn't drop a lot of salt and tried to get it out and could not get and it's so salty it's going to just bite you when you eat it. And here you are salting it down before you ever try it. But there are people who have prejudged Jesus Christ, the Bible, the gospel of Jesus Christ without ever having personally thoroughly examined it. 사실을 직접 확인해 본 연후에 마음을 정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 편견을 갖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다. 밝혀진 모든 사실을 검토해보기 이전에 어떤 상황에 대해 이미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의 판단은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종종 언급하는 어떤 사람의 태도와 같다 하겠다. 그는 식탁에 앉으면 음식을 맛보기 전에 먼저 모든 음식에다 소금부터 친다. 나는 그런 사람의 판단을 존중할 수가 없다. 그는 이 음식은 싱겁다 라고 하는 선입견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소금을 듬뿍 넣었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제는 소금을 덜어낼 수도 없을 것이다. 당신은 그 음식을 먹을 때 너무 짜서 고통을 느낄 것이다. 당신이 맛보기 전에 미리 소금을 넣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철저하게 음미해 본 적도 없이 막연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If you have personally thoroughly examined it and you say, Well, I still don't believe it, then I say, I respect your right to have an opinion. But if you have an opinion without really looking at the evidence, then I don't respect that at all. I don't respect your opinion. And so it's good to get people to read the gospel of John. If that's all of the Bible they ever read, that's important and that's probably the most important book for an unbeliever to read. They're always interested in the beast and the horns and everything else and they turn to the book of Revelations, then they say, You can't understand the Bible. 만일 여러분이 직접 철저하게 살펴보았는데도 당신이 아직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나는 당신이 그런 견해를 피력할 수 있다고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증거를 찾아보지도 않은 채 당신의 의견부터 말한다면, 나는 당신의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을 읽어보라고 권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그들이 읽어 본 성경이 요한복음 뿐이라고 해도, 그것은 중요한 책이므로 읽었다는 것 그 자체가 좋은 것이다. 요한복음은 아마 불신자들이 읽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일 것이다. 늘 짐승이나 뿔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자. 그런 사람도 요한계시록을 대한다면 성경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라고 말할 것이다.

But read the gospel of John. Encourage them to read the gospel of John. Read it and then let's discuss it. And the entrance of the word so often just brings light. God's word will not return void. And so John does write with a definite, slanted view and with a definite purpose in mind, convincing people that Jesus is the Messiah that by their believing that, they can have eternal life through His name. 그러나 요한복음을 읽어 보라.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을 읽어 보라고 권하라. 그런 다음에 서로 토론을 해 보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빛을 얻게 되는 일이 아주 종종 발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어 돌아오는 법이 없다. 요한은 이 책을 쓸 때 확고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썼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만들고자 함이요, 그들로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도록 하려 함이었다.

Thank You Father for the record that You have given to us and that You have left for us. Thank You for Your word which has become a lamp unto our feet, a light unto our path. May we walk in its light. Lord, we ask that our hearts will ever be open, that You might teach us, Lord, wondrous things out of Your word. Ever

open to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hat You want to accomplish in our lives. And that work of the Spirit that You want to accomplish through our lives. May we become instruments, Lord, through which You can accomplish Your will. And Father, help us we pray to become so keenly aware of Your presence that no matter where we are, in what circumstances or situations, we'll realize that You are with us. You are there beside us. And thus Lord, may we never do anything that we would not want to do right in plain sight of You. Lord, help us to remember You're there next time we're tempted to blow up over a situation. Next time we start to react or respond in our flesh, Lord, just remind us You're there. Tap us on the shoulder, Lord. Let us know Your presence so that we will not do those things that would offend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아버지여,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남겨 주신 책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발에 등이요 우리 길에 빛입니다. 우리가 그 빛 안에서 행하게 해 주소서. 주여, 우리가 간구하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열려 있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당신이 성취하기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당신이 성취하기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위해, 우리가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여, 당신의 뜻을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셔서 우리가 당신의 임재를 아주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처지와 환경 가운데 있든지,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거기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면전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지 않을 일이라면 다른 곳에서도 결코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황에 밀려 유혹에 빠질 때, 그 때도 당신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다음 번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반응하거나 대응하려 할 때, 당신께서 함께 거기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어깨를 살짝 두드려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임재를 깨닫게 하셔서, 당신이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게끔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